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0-직권-00002 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1. ○○○○학교 학생 ○○○○, 2. 학생 □□□,
3. ○-○ 학생들(이하, '학생들'이라 함)

피 조 사 자 ○○○○학교 교사 ○○○○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는 ○○○○학교 ○학년인 피해학생들을 체벌하고, 다수의 폭언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나. 학교교육을 처음 접한 ○○○○학교 ○학년인 피해학생들이 가졌을 두려움, 공포,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좌절감 등이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교육전문가, 아동 발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권연수를 활성화하고,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연수(피조사자는 20〇〇년 취득)시 학생인권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2018년부터 과목 폐지)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라. 이 사건은 2020. 8. 경 피해학생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아이를 체벌하지 않도록 부탁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피해학생이 학교 생활을 녹음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학교(학교장)가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 학생들의 피해를 보다 더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학생과 관련한 문제를 학교장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교사의 보고, 학부모 교육 등)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2. 〇〇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므로,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협의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

○ 2020. 10. 13.(화) 피조사자가 피해학생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가 학교폭력사안 보고하였고, 같은 날 언론이 해당 사안을 보도하였다.

○ 기초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피해학생들의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언론보도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사건 요지

1) 피조사자는 2020년 피해자 1.의 뺨을 꼬집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고, 2020. 8. 31.(월)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손으로 짹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 2020. 10. 6.(화) “○○○ 네 눈알이 어디로 돌아가냐. 저런 애들 납치하기 좋다니까 말도 못 알아먹는 놈들이라.”, “정신 나간 새○냐”, “니네 애○”, “죽여 버리면 됩니다.”, “그냥 목 졸라 죽여 버리면 됩니다.”, “이거도 죽는 겁니다. 쓸모가 없거든” 등의 폭언을 하였다.

2) 피조사자는 피해자 2.에게 “이 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원에 갔다버리면 됩니다.”, “야 고아원”, “이런 애들은 납치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는 쓸모가 없어. 납치를 해가도 쓸모가 없어” 등의 폭언을 하였다.

3) 피조사자는 복도에서 학생들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1.과 학급 학생들의 발바닥을 손을 사용하여 체벌하고, 2020. 10. 6.(화) 5교시 ‘○○○○○○’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모르면 죽여 버리면 됩니다.”, “돈 안주면 죽여 버린다.”, “돈 줘도 죽여 버립니다.”, “목 졸라 죽이면 됩니다. 피 나와서 처리하기도 힘든데”,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경찰은 니네 부모님 찾아줄 능력이 없어요.”, “○살 됐다고 안 죽으란 법 있을까요.”, “○살 안 돼서 죽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납치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전화번호 잘못 알고 있어도 죽는 거예요.”, “어른이 니들 납치해 다가 뭐

에다 써먹어요.” 등 다수의 폭언과 위협적 발언을 하였다.

3. 직권 조사 방법

가. 조사방법: 관련자 면담조사, 관련 자료(녹취자료 등) 조사 등

나. 조사 경과

- 2020. 10. 13.(화) 학교폭력 사안보고 접수, 해당 사안 언론 보도
- 2020. 10. 14.(수) ○○○○학교 방문 기초조사
- 2020. 10. 22.(목) 피해 학부모 면담조사 (학생 피해 관련자료 입수)
- 2020. 10. 27.(화) 기초조사 보고와 직권조사 계획 수립 통보
- 2020. 11. 5.(목) 피조사자 면담(문답)조사 실시

II.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붙임 1]과 같다.

2. 당사자 주장과 녹취기록

가. 피해자 1. 학부모의 주장

피조사자가 2020년에 피해자 1.의 뺨을 꼬집고,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하고, 2020. 8. 31.(월)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꼭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그리고 2020. 10. 6.(화) 피해자 1.이 수업시간에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못 썼다는 이유로 “니네 애○”, “새○” 등의 폭언을 하였다.

나. 피조사자의 주장

피해자 1.을 비롯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체벌 등을 한 것은 유괴 등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었고, 생활교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때로는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언한 부분이 있다.

3. 인정사실과 판단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33조도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

든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1) 물리적 폭력(체벌)에 대하여

가) 발바닥 체벌 행위 관련

피조사자는 2020년,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다는 이유로 ○학년 ○반 학생들의 발바닥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피조사자는 “복도를 뛰어다니지 말라며 손으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쳤다. 저도 제 발바닥을 때린다.”며 피조사자의 체벌 행위가 특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학생의 발바닥을 때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을 자세를 요구해야 하며, 적극적인 체벌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조사자는 체벌의 강도가 약했다고 주장하나, 체벌의 강도는 피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보다 중요한 문제는 체벌 행위

자체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들의 발바닥을 손으로 때린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학생의 불과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행위 관련

피조사자는 2020. 7.경 피해자 1.의 불을 잡아 상처를 입혔으며, 2020. 8. 31.(월)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양 손으로 째 잡아 멍이 들게 하였다.

먼저, 피해자 1.의 불에 난 상처를 살펴보면, 피조사자는 “피해자 1.이 점심을 먹은 후 양치질을 하려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 안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 피해자 1.을 불러 마스크를 교체해 주면서 ‘강민이가 확인하고 교체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말해라.’고 하면서 불을 한번 잡았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자는 피해자 1.의 마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불을 잡았다고 주장하나, 멍 자국의 위치와 멍 사이의 간격 등으로 보아 단순히 불을 잡았다기보다는 상당한 강도로 꼬집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1.의 허벅지에 난 상처를 살펴보면, 피조사자는 2020. 8. 31.(월)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의자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피해자 1.에게 “때리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지”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교사와 학생의 의례적인 면담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 1.의 허벅지 상처로 볼 때도, 피조사

자가 피해자 1.의 허벅지를 제압하듯이 상당한 강도로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눌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1.이 느꼈을 고통이 심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피해자 1.의 볼을 꼬집고, 허벅지를 제압하듯이 누르는 등의 체벌을 하여, 피해자 1.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언어폭력에 대하여

피조사자는 2020. 10. 6.(화) ○○○○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5교시 수업(안전한 생활: 길을 잃었어요) 중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게 아래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1.에게 한 발언>

- ○○○ 같은 애들 봐 봐. 몸집 쪼그맣지 붙잡고 가버리면 됩니다. 그냥 잡아서 데려가 버리면 되요. 일도 아네요. 일도 아네요.
- 거기 아니고 ○○○, 네 눈알이 어디로 돌아가냐. 저런 애들 납치하기 좋다니까 말도 못 알아먹는 놈들이라.
- 정신 나간 새○냐. 야. 니네 아빠 전화번호 뭐냐고.
- 그럼 니네 애○한테 전화할 때 010-○○○○○ 하고 끝나냐.
- 보세요. 이따위로 정신없는 새○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 딱 이용해먹기 좋아, 납치범이. 야. 부모님 전화번호도 몰라. 죽여 버리면 됩니다.
- 이 새○ 씨 가지고 돈 벌라고 했는데 부모님 번호도 몰라.
- 어 그냥 목 졸라 죽여 버리면 됩니다. 그러실래요.
-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있어요. 더 쓸모없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도 죽는 겁니다. 납치하면. 애요. 애도요.

- 애들아. ○○○는 납치해도 쓸모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대충 알고 쓸모가 없어. 어떻게 이러냐.
- 야. 전화번호가 ○○○○로 끝나는 새끼가 어딴어.
- 야. 니네 집이 ○○길이나. 니네 집이 ○○길이야. 니네 아빠 전화번호나 외워 새○야.

<피해자 2.에게 한 발언>

- 이 새○는 지금 ○○○○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야. 여기 니네 집 아니다.
- 이 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고아원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야. 부모님 이름도 모르는데, 애 갖다 버리면 됩니다. 고아원 갖다 버리면 됩니다. 너같이 부모님 없는 놈들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 야. 고아원, 일어나.
- 애는 부모님 이름도 못 썼습니다. 부모님 이름도 못 쓴 애가 전화번호 알겠습니까. 집 주소는 알겠습니까.
- 이런 애들은 납치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데려갈 이유도 없어요. 이 바보 데려가서 뭐 합니까. 쓸 데도 없는데요. 밥 달라고 울기나 하고. □□□는 쓸모가 없어. 납치를 해가도 쓸모가 없어.
- 너는 지금 할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할아버지 번호를 알아야지. 이 자○아.

그리고, 피조사자는 2020. 10. 6.(화) 같은 수업시간에 ○학년 ○반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

- 난 니네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 ○살 됐다고 안 죽으란 법 있을까. 애들아. 우리 친구들 ○살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살 안 돼서 죽는 친구도 있어요.
- 돈 쥐도 죽여 버립니다.

- 뭐 하러 칼로 죽여요. 목 졸라 죽이면 되는데. 뭐라고 힘들게 칼로 죽입니까. 피 나와서 처리하기도 힘들게. 그냥 목 졸라 죽이면 아무 상관도 없죠.
- 어차피 니들은 힘으로 어른을 못 이깁니다.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쉬워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힘이 많이 없다는 거.
- 어른들도 납치당합니다. 똑같아요. 진짜야. 근데 어른이 어른 납치하는 것도 쉬운데 어른이 너희 같은 애기를 납치하는 건 쉬울까. 일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채 잡고 끌고 가면 됩니다.
- 다시 말하지만 나는 너네 길 잃어버리면 그대로 놓고 갈 겁니다. 안 찾을 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놓고 가겠습니다. 길 잃어버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알아서 버스 타고 오시든 기어 오시든. 나, 안 찾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 창피한 줄 아세요. 진짜. 어디 가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차에 태워 놔서 광주 어디에다 버려놨습니다. 광주도 문제가 아니야. 저 바닷가에 버려놓을게요. 선생님이 바닷가에 버려놨습니다. 집에 갈래요. 뛰어 갈래요.
- 선생님이 오늘 지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아무데나 갔다 버려놓을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갈래. 그 자리에서 울고 있으면 뭐 해줄까. ○○에 어디 저기 멀리 자동차로 30분 걸리는 데다 가서 내려줄게요. 집에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갈래요. 우리 친구들이.
- 우리 친구들 1학기 때 납치해 버릴 걸. 집주소도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납치해서 죽일 걸. 쓸모도 없으니까

위 수업 중 발언에 대해, 피조사자는 “○○○○○○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유괴상황이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며, “해당 지역에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보여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자는 말을 자주 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강조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조사자의 수업 중 발언은 피조사자가 제출한 자료(○○

○○○ 교사용 지도서: ○○○○○○ 단원 주요내용)의 교육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납치, 유괴, 살해 등 극단적인 상황이 주된 내용으로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안전을 위협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조사자는 “학생들이 부모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등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실망했고 감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1.의 학부모가 제출한 위 5교시 수업 녹취 기록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가 “학생들에게 실망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만한 정황이나 맥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학교 ○학년 학생이 부모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쓰지 못해 교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 ○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1시간 10여분(○교시에서 ○교시 일부까지) 수업 시간 내내 “야. 부모님 전화번호도 몰라. 죽여 버리면 됩니다.”, “어 그냥 목 졸라 죽여 버리면 됩니다.”, “뭐 하러 칼로 죽여요. 목 졸라 죽이면 되는 데.”, “이런 애들은 납치해봤자 쓸모가 없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조사자의 “난 니네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네 길 잃어버리면 그대로 놓고 갈 겁니다. 안 찾을 거예요. 길 잃어버리면 놓고 가겠습니다. 길 잃어버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나, 안 찾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라는 발언은 ○○○○학교 ○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라 할 수 있고, 교사의 보호와 지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조사자의 극단적인 발언을 1시간 10여분(○교시에서 ○교시 일부까지) 수업 시간 내내, 반박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과 두려움, 절망감이 상당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외상 또한 심각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못 쓴 피해자 1.과 피해자 2.뿐만 아니라 1학년 1반 학생들 모두가 피조사자의 언어폭력에 긴 시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판단하며, 피조사자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인격권과 휴식권 침해

1) 인격권 침해

앞서, 피조사자가 2020. 10. 6.(화) 5교시 수업시간의 발언 내용에서와 같이, 피조사자는 수업중임에도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게 “정신 나간 새 ○.”, “이 새○”, “바보”, “야. 고아원” 등으로 지칭한 사실이 있고, “납치를 해봐야 쓸모가 없다.”는 발언으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비하, 비난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는 피해자 1.의 부모를 “니네 애○”로, 피해자 2. 가정환경을 “너같이 부모님 없는 놈들 갖다 버리는 곳이 (고아원)이다”

로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를 비하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피조사자는 학생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놈들 딱 이용해먹기 좋아, 납치범이. 야. 부모님 전화번호도 몰라. 죽여 버리면 됩니다.”, “이 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원에 갖다 버리면 됩니다. 야. 부모님 이름도 모르는데 애 갖다 버리면 됩니다.” 등, 납치와 살해의 원인을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제공하고 있고, 고아원에 가는 이유 또한 피해자 2.에게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위 피조사자가 사용한 욕설, 비하, 비난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언어일 뿐 아니라, 납치, 살해, 고아원 유기의 원인이 학생에게 있다는 발언은 학생의 인격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업중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욕설, 비하, 비난 발언을 들어야 했던 피해자 1.과 피해자 2.의 입장에서는 모욕감, 수치심뿐 아니라 불안감, 공포감, 절망감 등이 상당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학교 ○학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외상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학교 ○학년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비하, 비난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 1.과 피해자 2. 뿐만 아니라 ○학년 ○반 학생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휴식권 침해

피해자 1.의 학부모가 제출한 2020. 10. 6.(화) ○교시 수업시간 녹취 기록에 따르면 아래 내용과 같이, 해당 수업 녹취 시간이 총 1시간 10여 분으로 ○교시 수업에서 ○교시 일부시간까지 휴식시간 없이 수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020. 10. 6.(화) ○교시 수업시간 녹취 기록, 부분 발췌 >

| 시간 | 녹취 주요 내용 |
|---------|--|
| | (생략) |
| 1:06:05 | ○교시 수업 끝 중 울림 |
| 1:08:09 | 경찰은 니네 부모님을 찾아줄 능력이 없어요. 네가 모르면 이름만 말해주면 찾아줄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모르면 길 잃어 버렸을 때 부모님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 모르면 고아 되는 거예요. |
| 1:16:16 | ○교시 수업 시작 중 울림 |
| | (생략) |
| 1:26:37 | 반성하는 의미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마시고 화장실만 갔다가 빨리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 너는 가지마. ○○○. 선생님이 아까 ○○○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었으면 적었다 안 적었다 손 들으라니까 왜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응. ○○○ 선생님하고 장난해. 왜 안 들었어요. 알았어. 근데 왜 안 들었어. 왜 안 들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너 말 안할 거지. 말 안할 거면 나가있어. 나갈래. 말한다고 혼낼 거 아니거든요. ○○○는 아빠가 알면 안다고 하세요. 할 말이 없어. 왜 손을 안 들었습니까. 안 혼낼 거예요.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손을 안 들었어.(못 들어서요) 이거 말 듣는데 몇 분이 걸려. |
| 1:48:04 | (생략) |

○○○○학교 수업 시정표에 따르면, ○교시는 13:10- 13:50이며, ○교시는 14:00-14:40으로 40분 수업, 10분 휴식임을 알 수 있고, ○교시 이후 6교시부터 8교시까지는 방과후 돌봄 시간으로 ○○○○○학교 ○학년 수

업은 ○교시까지이다.

위 녹취 기록을 살펴보면, 피조사자가 학생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한 시간은 ○교시 수업 시작 종이 울리고 10분이 지난 후이다. 즉, 학생들에게 휴식이 주어진 시간은 ○교시 수업 시작 이후 ○○분이 지나서였다. 아울러, 피조사자가 “반성하는 의미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물마시고 화장실만 갔다가 빨리 오세요. 갔다 오세요.”라고 한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휴식시간 조차 학생이 누려야할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1.은 피조사자의 제지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억압된 분위기에서 1시간 10여분 동안 꼬박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학교 ○학년 학생인 피해자 1.이 느꼈을 고통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가 ○학년 ○반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1.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 피해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과 학대 관련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조사자의 발언들은 ○○학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높아 해당 발언을 들은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피조사자가 이와 같은 발언을 만○~○세인 ○○○○학교 ○학년 학생들에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 피해는 더욱 크고 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들에게는 협박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욕감, 수치심, 좌절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피해학생들이 ○○○○학교 ○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조사자의 행위는 언어폭력, 인격권 침해, 휴식권 침해 등에 의한 아동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는 피해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하여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학생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결론

피조사자는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적절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학생들에게 체벌 또는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는 학생인권과 폭력에 대한 매우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학생들이 ○○○○학교 ○학년들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조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린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아동 유괴에 대한 교육시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져서',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자는 말을 자주 했다', '감정적으로 자제하지 못했다'는 등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주변

의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피조사자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또는 혐오(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아동 유괴 위험이 늘어났다고 생각한 편견), 감정과 무관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학생들 발바닥 체벌, 학생의 볼과 허벅지를 꼬집는 등), 교사가 학생교육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사용(목 졸라 죽인다, 피가 나니 귀찮다 등) 등을 살펴보면, 피조사자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순간적인 실수 또는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조사자의 행위로 인해 ○○○○학교 ○학년인 피해학생들이 가졌을 두려움, 공포,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좌절감 등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전문가, 아동 발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를 분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조사자는 20○○년 ○○○○학교에서 1년 1개월 근무하고, 군대복무 후 20○○. 4. 21.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피조사자는 근무 경력 ○년 남짓인 교사로 20○○에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조사자는 학교가 매학기 실시하는 교사 인권교육 외에는 인권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않았고,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학생인권분야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에 ○○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사례로 보는 학생인권과 인권교육”을 개설하여 20○○까지 해당 과목을

운영하였으나, 20〇〇부터 현재까지는 해당 연수에 학생인권 과목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〇〇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학생인권 관련 과목을 다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2020. 8. 경 학생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학생을 체벌하지 않도록 부탁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학생이 학교 생활을 녹음하면서 알려졌다.

허벅지에 멍이 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가 이를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 학생들의 피해를 보다 더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해소되지 않는 특이 사항은 담임교사가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학생 교육 관련하여 해소되지 않는 문제는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전달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 포함시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Ⅲ.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0. 11. 2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붙임 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